

최종 발표(겪었던 어려움)

▼ 팀명

상우- 내가 겪었던 어려움

인증에 대한 이해도↓, 스프링 시큐리티 이해도 ↓, jwt, oauth 이해도 ↓ 구현어려웠음

oauth naver계정과 카카오계정이 email이 같은경우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email로 찾는 코드에서 db의 pk로 찾는과정으로 모든코드를 변경하는데 힘들었다

스토브 타임라인은 동적컨텐츠라 jsoup으로는 크롤링이 불가능하고

셀레니움을 사용해야하는데 이걸 몰랐어서 헤맸다

스토브로부터 로스트아크 계정 불러오는 과정을 찾는게 쉽지 않았음

이 과정에서 셀레니움을 사용해 크롤링을했는데 로컬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리눅스기반 배포환경에서 크롬드라이버나 크롬설치 등의 과정이 어려웠음

인프라에 대한 지식, 경험 ↓

db와 스프링부트를 함께 이미지화 하는 도커컴포즈가 마찬가지로 그 환경에선 잘 돌아갔는데

도커 허브에 업로드하고 풀받을때 도커 컴포즈로 설정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 쿠버네티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

연동과정에서 삽질을 많이함 → 시간 부족으로 인해 알림 개발 미흡

개발하고 쿠버네티스로 재배포할때 안될때가 많음

근데 뭐 application.properties가 바뀐것도아니고 그냥 git pull받고

다시 jar파일빌드해서 도커이미지빌드해서 도커허브올리는거밖에없는데

안될때가 있다

로그를 봐도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겠던

이런 배포에서 항상 뭔가 막혔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

쿠버네티스-oauth로그인

oauth로그인은 redirect url을 지정해주어야한다 application.properties에도 그렇고
네이버 developer, 카카오 developer 내애플리케이션에도 해줘야되는데
배포에서 어려움을 겪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재구성하면서 다시 ip가 바뀌게 되고,
그럴때마다 변경해주어야되는게 상당히 번거로웠다
그래서 그냥 안해버릴거~ 시간남으면함~

인증서버와의 의존성

친구서버 api호출할때 accesstoken유효성검사를위해 인증서버의 api를 호출하는데
인증서버가 url이바뀌면
친구서버도 수정해서 재배포해야한다

아쉬움: 진작 인증좀 빨리 끝내고 빨리 개발할걸

계획 짤때 개발에 대한 부분만 잡아놓고 연동에 대한 부분을 너무 적게 잡았던 것이 오류였
던듯

현성

rdb 설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Django ORM 사용 미숙
게시글과 댓글을 각각 클래스 설계 후 1:N 구조로 구성하려 했으나